

경제

사업비 총 3,362억 영산강 6공구 수주 싸고

금호·남양·한양 '빅매치' 예고



광주지역산·학·연 과학기술인력들의 연구활동과 교류협력을 지원할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가 7일 박광대 광주시장, 김준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남한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첨단산업단지 광주테크노파크내 협력센터 1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회의시설과 게스트룸, 연회장, 후생복지시설 등을 갖췄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10월부터 술도 단위가격 표시해야
라면 등 279개 제품은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

기아차 연비 개선
신형 '카니발' 출시



기아자동차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연비를 개선한 '카니발' 상품선 모델(사전)을 7일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최적의 연비 실현구간을 안내, 연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안내시스템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자동변속기 기준)했다. 판매 가격(디젤 A/T 기준)은 ▲뉴카니발(9인승) 2천458만~2천747만원 ▲카니발 리무진(9인승) 2천711만~3천357만원 ▲그랜드 카니발(11인승) 2천345만~3천362만원이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가격표시제 실시 개정안

오는 10월부터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현행 33종에서 83종으로 50종 늘어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품목이 모든 의류 제품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을 햄, 유유 등 일부 가공식품과 임용잡화 33종에 한정하던 것을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임용잡화 및 농·수·축산물 등 총 83

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케첩·원장·소스류·주류 및 음료류는 100㎖당, 어육·소시지·두부는 100g당, 과자·견과 및 사탕류는 1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껌의 수는 10장당, 가루비누와 세탁비누는 100g당, 농·수·축산물은 100g 단위로 가격이 표시돼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 등 32개에 한정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의류 전 제품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279개 품목으로 늘렸다. 새롭게 추가된 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해당 업계의 준비가격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연남스

금호고속, 피서지 임시버스 운행

광주~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금호고속은 7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광주에서 충남 대천 해수욕장 등 유명 피서지를 오가는 임시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운행 구간은 광주에서 대천 해수욕장,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등이며 운행 기간은 대천 해수욕장이 이달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명사십리와 가마미 해수욕장은 이달 18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김지욱기자 dok2000@

광주~대천 해수욕장 버스는 광주 출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10분 등 1일 2회 왕복운행된다. 완도 명사십리행 버스는 광주 출발 오전 7시 20분을 시작으로 오후 2시 40분까지 1일 6회 운행한다. 영광 가마미행 버스는 광주 출발 오전 7시 50분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1일 6회 운행하게 된다. 문의장은 062-360-8114. /김지욱기자 dok2000@

Table with 2 columns: Item Name and Price/Value. Includes items like 코스피지수 (1,434.20), 코스닥지수 (508.76), 금리 (4.13%), and 원·달러 환율 (1,273.10원).

4대강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서류 마감

2공구(다시)에서도 지역업체 수주전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주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는 건설업체들이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량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지역 건설사들의 선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6일 4대강 살리기 공구별 사업자 선정에 앞두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한 결과, 15개 공구에 전국 최상위권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서류를 내고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돌입했다. 영산강의 경우 총 사업비 3천362억원이 책정된 제6공구(서창) 하천정비사업에서 금호·남양·한양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간 빅 매치가 불가피하다. 금호건설은 50%의 지분을 갖고 동

아건설산업(15%)·진흥건설(10%)·모아종합건설(8%)·경화건설(7%)·진환건설(5%)·두한종합건설(5%) 등으로 팀을 이뤘다. 남양건설은 60%의 지분을 갖고 동광건설(11%)·남영건설(9%)·성삼건설(5%)·웅진종합건설(5%)·영진종합건설(5%)·세움종합건설(5%)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지역 중견 건설사였던 보성건설과 합병한 ㈜한양은 금강기업(15%)·남해종합건설(7%)·우미건설(7%)·새천년종합건설(7%)·삼성에버랜드(7%)·남도건설(5%)·대선건설(5%)·해동건설(5%) 등과 컨소시엄을 이뤘다. 1천487억원의 제2공구(다시)하천정비사업에서는 삼성중공업(40%)이 풍림(20%)·월드(5%)·이연개발(5%)·신화(7%)·가산토건(9%)·남흥건설(9%)·금강건설(5%) 등으로 컨소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참가현황

Table with 3 columns: Company Name, Bid Amount (Billion Won), and Bidder Ratio (%). Lists companies like 영산강 살리기 2공구(다시) 하천정비사업 and 영산강살리기 6공구(서창) 하천정비사업.

업을 구성해 신동아 컨소시엄(신동아건설 50%+금강기업 20%+KCC건설 15%+새천년종합건설10%+해솔종합건설 5%)과 맞붙는다. 지역 건설사들은 영산강 이외에도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타 지역 사업 수주에도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 공구에서 파트너로 참여했다가 다른 공구에서 경쟁자로 나서는 등 수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낙동강 살리기 제23공구 사업(총 사업비 3천256억원)에는 70%, 한강살리기 제3공구에 60%의 지분을 갖고 각각 대표사로 나섰다. 남양건설은 금강기업과 각각 7%의

지분율로 낙동강 살리기 제33공구 컨소시엄에 뛰어들었다. 금강기업은 낙동강 외에 영산강 2개 공구, 금강살리기 제6공구(2천798억원) 등 4개 공구에 참여했고 동광건설도 영산강 제6공구 외에 금강 제7공구(1천800억원·8%), 낙동강 제22공구(4천600억원·15%) 등 5개 공구에서 대형건설사와 '짝짓기'를 했다. 지역 건설업체는 향후 참여 건설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포스코코스트팀을 만들어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짜는 한편 발주처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및 물량 로비를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세 임대소득세' 재도입 검토

'9억 이상' 1주택자도 전세 내주면 부과 대상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전세를 임대해줄 때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를 내주면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전세와 월세에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변한만큼 다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경우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은행 금리가 낮아져 주택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가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료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연남스

포스코 '환경경영' 시동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탄소배출 저감 등 추진

포스코는 7일 '범(汎)포스코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동희 포스코 사장 등 포스코 임원 8명, 포스코건설과 포스데이타, 포스코퓨얼 등 출자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산하에 ▲저탄소 철강기술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 ▲녹색 신성장사업 등 4개 분과를 두고 과제별 전략수립 및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분과위 가운데 저탄소 철강기술 분과는 혁신적 이산화탄소 배출저감기술과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 전략을, 기후변화대응 분과

는 포스트-코토체제 진입에 대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포스코는 이날 출범식에서 회사의 녹색성장 비전을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Global Green Growth Leader)로 명명하는 한편, 철강산업의 저탄소 체제구축과 녹색 신사업 발굴, 육성을 통한 비철강 신성장동력을 담은 '범포스코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오는 10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41조 원이었던 그룹 매출을 오는 2018년까지 100조 원으로 늘리는 '비전 2018'을 위해 창조경영,열린경영, 환경경영의 3대 경영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가 가운데 환경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남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수완지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ji-gu, featuring a large '수완지구'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